

백두산에 오르면 통일이 보인다

보인다고 말한다. 백두산에 오르면 통일이 보인다. 백두산은 우리 겨레 누구나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있는 민족의 성산이다.

민족의 자주기상이 어려

사시장철 머리에 흰눈을 이고있다고 하여 이름도 백두산이라 불리우는 민족의 성산은 아득히 먼 지질시대에 형성되어 오랜 세월 각이한 자연현상에 의하여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산악미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 겨레는 오래전부터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우러러왔다. 고구려 중엽에 벌써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전해져왔다는 사실은 백두산이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명산중의 명산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백두산은 낮에도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우는 등 신비한 자연경관으로 하여 오늘날 찾아오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다. 세월의 모진 비바람속에서도 굳건히 솟아있는 백두산처럼 우리 겨레는 역사의 수많은 곡절속에서도 자기의 민족성과 민족 전통을 지켜왔다. 외세의 침략으로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그 세월속에서도 민족의 정기가 어딘 백두산을 마음의 기

등으로 삼고 반일독립투쟁의 기치를 든 우리 겨레이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백두산을 가리켜 백의민족의 기상과 넋이 살아숨쉬는 성스러운 산이라고 하면서 백두산이야말로 꺾이지않고 굽히지 않는 조선민족의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산이라고 하고있다. 민족의 역설 자주기상이 어려있어 이곳에 오르면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을 단호히 갈장명겨레의 의지를 더욱 느낄수 있다.

삼천리를 품에 안고 백두산

백두산마루에서 시작되어 저 멀리 조선반도남부까지 뻗어간 백두대산 줄기는 우리 나라를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놓는 거대한 산줄기이다. 백두산에 오르면 수없이 솟은 이 나라의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한눈에 보이고 동해와 서해의 푸른 물결이 금시라도 안겨오는 것만 같다. 백두산의 젖줄기를 마시고 솟은듯 백두대산줄기를 따라 솟아난 조국의 산과 봉우리들을 바라보노라면 내 조

국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의 강도, 돌로 갈라질수 없는 겨레의 땅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백두도 내 조국 한나도 내 조국이라고 하며 저저마다 백두산정에 올라 저 멀리 한나를 찾고 부르고 통일을 웨치고있는것 아닌가. 삼천리의 지맥이 하나로 이어졌듯이 우리 조국도 하나이다. 그래서 백두산에 오르면 통일이 보인다고 한다.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강도 일체를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신 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다. 월전만리, 눈보라만리의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백두산 일대에서 조국방 방방북쪽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애국렬사들을 만나주시였으며 이곳에서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도 구상하시였다. 백두산은 또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력사의 고장이자.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념원이었던 조국통일을 이룩하실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무르익힌 통일이 큰 작전과 구상을 실천하여 6.15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도 백두산을 사랑하시고 여기에 자주오르시어 백두의 맹장 칼바람도 맞으시며 부강조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치신다. 태양의 빛바람이 삼천리를 비치여 더욱더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다. 그 성산에 오르면 통일이 보인다.

본사기자 강류성



북, 남, 해외작가들 백두산정에서 《통일문학의 새벽》모임 진행 (2015년 7월)

통일애국의 길에서 생을 빛내인 애국인사들가운데는 그리스도교신자였던 김창준목사도 있다.

통일을 불러

목사가 안긴 복락의 세계 (1)

닐가 하고 생각하곤 하였다. 하여 그는 독실한 교인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그때를 회상하여 김창준목사는 《...나는 숭실중학과 숭실전문학교를 다니던 고학 시절에 서양선교사네 집에서 기르는데 개가 우리 조선학생들보다 나은 음식을 먹는것을 보고 고학 생각하였다는것이 이러한 사회적불평등은 (지상천국)이 와야 없어진다는 것이었다.》라고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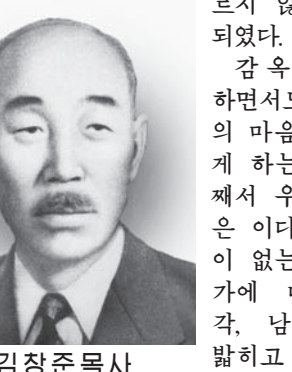
그가 1912년 6월에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광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자기 가정의 불락과 함께 나라의 쇠퇴과정을 함께 보아온 그는 민족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으려면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전문을 넓혀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소학교 파정안을 단 1년만에 끝마치고 평양숭실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그가 그리스도교의 세계에 끌려들게 된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미국선교사들이 날마다 설교하는 그리스도교 교리에 심취되어가면서 그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수 있는 길이 아

니라 하고 생각하곤 하였다. 하여 그는 독실한 교인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그때를 회상하여 김창준목사는 《...나는 숭실중학과 숭실전문학교를 다니던 고학 시절에 서양선교사네 집에서 기르는데 개가 우리 조선학생들보다 나은 음식을 먹는것을 보고 고학 생각하였다는것이 이러한 사회적불평등은 (지상천국)이 와야 없어진다는 것이었다.》라고 썼다.

그가 1912년 6월에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광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자기 가정의 불락과 함께 나라의 쇠퇴과정을 함께 보아온 그는 민족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으려면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전문을 넓혀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소학교 파정안을 단 1년만에 끝마치고 평양숭실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그가 그리스도교의 세계에 끌려들게 된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미국선교사들이 날마다 설교하는 그리스도교 교리에 심취되어가면서 그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수 있는 길이 아



김창준목사

니라 하고 생각하곤 하였다. 하여 그는 독실한 교인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그때를 회상하여 김창준목사는 《...나는 숭실중학과 숭실전문학교를 다니던 고학 시절에 서양선교사네 집에서 기르는데 개가 우리 조선학생들보다 나은 음식을 먹는것을 보고 고학 생각하였다는것이 이러한 사회적불평등은 (지상천국)이 와야 없어진다는 것이었다.》라고 썼다.

그가 1912년 6월에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광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자기 가정의 불락과 함께 나라의 쇠퇴과정을 함께 보아온 그는 민족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으려면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전문을 넓혀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소학교 파정안을 단 1년만에 끝마치고 평양숭실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그가 그리스도교의 세계에 끌려들게 된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미국선교사들이 날마다 설교하는 그리스도교 교리에 심취되어가면서 그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수 있는 길이 아

니라 하고 생각하곤 하였다. 하여 그는 독실한 교인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그때를 회상하여 김창준목사는 《...나는 숭실중학과 숭실전문학교를 다니던 고학 시절에 서양선교사네 집에서 기르는데 개가 우리 조선학생들보다 나은 음식을 먹는것을 보고 고학 생각하였다는것이 이러한 사회적불평등은 (지상천국)이 와야 없어진다는 것이었다.》라고 썼다.

남조선에서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3주년을 맞으며 《남북간합의사합리행》, 《한반도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운운하는 당국에 대한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는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3주년을 맞으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 정부부터 정적현안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

라고 하면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9월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3년, 력사적인 합의는 사라지고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는 경색을 넘어 대결로 치달고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는 정신이야말로 남북이 평화와

변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이자 정도임을 다시 강조하며 정부의 사고전환과 실천을 다시 호소한다.》라고 토로하였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는 8.15해방의 날을 맞으며 여러 정당, 단체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정부는 이제 임기 반년을 채 남기지 않았다.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 평양공동선언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더 큰 불신이나 자라나듯 단지 남북관계의 중단이 아니라 대결관계로 회귀하고 있다.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 정부는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편 남조선언론 《민력리》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전략방향은 한반도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통일의 길을 여는것이다. 한반도평화협정을 위한 최우선과제는 대북적대정책철폐다. 문제는 한미가 이를 리행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적대정책철폐, 신뢰회복의 귀결점은 한반도평화협정이다.》고 비판하였다.

본사기자 박철남

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공화국정부의 3자회담제안은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군대와 군비를 대폭 축소할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84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연합회의를 통해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토의하고 공화국과 미국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시켜 3자회담을 진행하며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의하였다. 연합회의는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어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가 마련된 다음 조국통일3대원칙에 맞게 통일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84년 1월 25일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화통일을 추진할데 대하여》를 심의하고 조미사이에 회담

을 위한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

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연합회의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은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엄중한 사태를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전제적 노력의 표시이며 세계평화위업에 총실하려는 전제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의 표시였다. 공화국정부가 3자회담을 통하여 이루려고 한 평화제안은 평화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전쟁을 근원적으로 청산할것을 예견한 자주적이며 철저한 평화제안이었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와 관련한 모든 주변국과 문제를 폭넓게 전면적으로 해결하려는 포괄적인 평화제안, 조국통일의 전제를 마련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통일지향적인 평화제안이었다.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은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우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방안이었다.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이 발표되자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여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여 나섰으며 각계층 전체 인민이 그 조속한 실현을 각 방면으로 촉구하여나섰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쇼적폭압속에서도 3자회담을 적극 지지하여나섰고 해외동포들도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은 세계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실질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3자회담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에 《남북대화》, 《주변국사회》라는것을 대치시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에 《4자회담》을 들고나오다가 다음에는 《남북당국자대화》라는것을 주장해나섰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가면서 《남북대화》와 《주변국사회》에 대해 떠들었다. 그러나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3자회담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수 없었다. 김 원

《정부부 이제 임기 반년을 채 남기지 않았다.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 평양공동선언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더 큰 불신이나 자라나듯 단지 남북관계의 중단이 아니라 대결관계로 회귀하고 있다.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 정부는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편 남조선언론 《민력리》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전략방향은 한반도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통일의 길을 여는것이다. 한반도평화협정을 위한 최우선과제는 대북적대정책철폐다. 문제는 한미가 이를 리행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적대정책철폐, 신뢰회복의 귀결점은 한반도평화협정이다.》고 비판하였다.

본사기자 박철남

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공화국정부의 3자회담제안은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군대와 군비를 대폭 축소할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84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연합회의를 통해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토의하고 공화국과 미국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시켜 3자회담을 진행하며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의하였다. 연합회의는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어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가 마련된 다음 조국통일3대원칙에 맞게 통일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84년 1월 25일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화통일을 추진할데 대하여》를 심의하고 조미사이에 회담

을 위한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

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연합회의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은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엄중한 사태를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전제적 노력의 표시이며 세계평화위업에 총실하려는 전제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의 표시였다. 공화국정부가 3자회담을 통하여 이루려고 한 평화제안은 평화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전쟁을 근원적으로 청산할것을 예견한 자주적이며 철저한 평화제안이었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와 관련한 모든 주변국과 문제를 폭넓게 전면적으로 해결하려는 포괄적인 평화제안, 조국통일의 전제를 마련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통일지향적인 평화제안이었다.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은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우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방안이었다.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이 발표되자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여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여 나섰으며 각계층 전체 인민이 그 조속한 실현을 각 방면으로 촉구하여나섰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쇼적폭압속에서도 3자회담을 적극 지지하여나섰고 해외동포들도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은 세계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실질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3자회담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에 《남북대화》, 《주변국사회》라는것을 대치시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에 《4자회담》을 들고나오다가 다음에는 《남북당국자대화》라는것을 주장해나섰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가면서 《남북대화》와 《주변국사회》에 대해 떠들었다. 그러나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3자회담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수 없었다. 김 원

남조선인민들은 파쇼적폭압속에서도 3자회담을 적극 지지하여나섰고 해외동포들도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은 세계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실질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3자회담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에 《남북대화》, 《주변국사회》라는것을 대치시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에 《4자회담》을 들고나오다가 다음에는 《남북당국자대화》라는것을 주장해나섰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가면서 《남북대화》와 《주변국사회》에 대해 떠들었다. 그러나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3자회담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수 없었다. 김 원

남조선인민들은 파쇼적폭압속에서도 3자회담을 적극 지지하여나섰고 해외동포들도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은 세계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실질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3자회담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에 《남북대화》, 《주변국사회》라는것을 대치시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에 《4자회담》을 들고나오다가 다음에는 《남북당국자대화》라는것을 주장해나섰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가면서 《남북대화》와 《주변국사회》에 대해 떠들었다. 그러나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3자회담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수 없었다. 김 원

남조선인민들은 파쇼적폭압속에서도 3자회담을 적극 지지하여나섰고 해외동포들도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은 세계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실질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3자회담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에 《남북대화》, 《주변국사회》라는것을 대치시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에 《4자회담》을 들고나오다가 다음에는 《남북당국자대화》라는것을 주장해나섰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가면서 《남북대화》와 《주변국사회》에 대해 떠들었다. 그러나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3자회담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수 없었다. 김 원

